

# 지역 맞춤형 재택관리지원 눈길

무주군, 군민 39% 60세 이상 고령자...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 전체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조정안이 시행이 되고 10일부터는 확진자 의료체계도 셀프 재택치료 중심으로 변경이 되면서 정부지침도 달라진 가운데 무주군이 지역 현실과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재택관리지원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 지침에 의하면 지자체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대상자 50대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요양시설입소자 등에 대한 지원과 일반관리군에 대한 행정 상담만 하면 된다.

의료 상담은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전북 3곳, 무주·남원의료원)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무주군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 전체를 지원한다. 건강관리팀(하루 2번, 체온 및

신체증상 이상 유무 등)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격리기간과 해제일, 외래진료센터, 동네병의원(비대면) 안내(문자)와 기초 의료상담, 약 처방, 그리고 약을 지어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지도 제공한다.

또 일반 관리군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의료키트(체온계, 해열제, 소독약 등)와 식료품(즉석요리류)을 지원하고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밀접접촉자 확인 등 전화역학조사 체계도 계속해서 유지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동훈 과장은 "우리군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 주민의 39%를 차지하다 보니 이에 맞는 재택관리지원이 필요했다"며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취약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원에 정성을 쏟는 등 완치

까지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재택치료 추진단을 꾸려 운영 중으로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와 의료지원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시설사업소 등이 협력해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지원과 안심숙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택치료 중인 한 주민은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챙겨주고 약도 타다 주더라"며 "미안하고 고맙은 마음이 큰 만큼 어서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도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2월 14일 현재 무주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80명 이고 이 중 16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제18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온라인 개최

3월 11일 군 유튜브 채널 '빠망TV' 통해 참여 가능... 체험 프로그램·이벤트 등 진행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코로나 상항으로 올해에도 온라인 축제로 개최됨에 따라 사전에 참석자를 모집한다.

군은 온라인 축제로 개최됨에 따라 오는 3월 11일 14시부터 진안군 유튜브 채널 '빠망TV'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영상에서는 고로쇠 홍보 영상과 고로쇠 증산기원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운장산 고로쇠 키즈쇼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마련했다.

또한 2월 18일까지 참여 프로그램인

고로쇠 채취 체험단 가족 5팀을 선차순으로 모집한다.

선발된 체험단은 2월 28일 14시 주천면 삼거리마을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체험, 숲 탐방, 항주머니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를 추억하는 사진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봄의 향기를 맞볼 수 있는 고로쇠 수액도 2+1 온라인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진

안군 소공연인 '진안고원볼'과 유선접수로 동시에 진행되며, 3월 11일 15시에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10% 추가할인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홍삼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귀현 고로쇠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축제를 통해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로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온라인 판매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맛보고 즐기셨으면 기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영수 장수군수, 장수교 재가설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장수군이 관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장영수 군수는 14일 장수교 재가설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안전 기준 준수 여부 점검과 겨울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건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광주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마련했다.



장영수 군수는 14일 장수교 재가설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각 실과별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관내 1억 원 이상 하천, 도로, 건축 등 공사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보

기통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및 자재의 적정성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군은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험행위가 적발된 건설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 중지,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과 작업자들의 안전"이라며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사장 주변 현황을 집중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말하다

진안군, 주민설명회 열고 주민 참여·지역사업 연계 도모

진안군은 14일 마이산 에코타운에서 군 관계자를 비롯해 주민, 지역 신활력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에게 공동 가공센터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안헬스푸드 사업을 비롯한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추진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다.

특히 진안군민의 독자적인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계획했던 용역사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직접 설명에 나서 설명회를 활발하게 이끌었다.

군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 등을 확정하고 올해 약 22억원을 투입해 진안헬스푸드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공동가공센터 건립을 구체화하고 관내 각 지역의 특성과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해 해당 주민 공동체 및 여러 민간업체에 조직을 통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3월에 개소할 예정인 진안헬스푸드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 추가로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추진해 관심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진안에서 홀삼제조업을 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홀삼가공업 사업 추진에 이번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며 "진안헬스푸드 아카데미에 꼭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융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많은 기대를 보였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은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진안헬스푸드 아카데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주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경제공동체 발굴 및 육성으로 실제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제2기 청년정책 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무주군이 균형 정책에 관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제2기 무주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4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일자리·주거 복지·문화, 교육·소통, 농업 등 총 4개 분과로 위촉 후 2년 동안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연구 활동, ▲정책 발굴 및 제안 ▲청년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일을 하게 된다.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의 청년, 무주군 소재 직장장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우편(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과 방문, 이메일(wghisil202@korea.kr)로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 장기진 팀장은 "군에는 위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무주, 청년들이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 거부 결의

무주군의회, 재정성 촉구 결의안 의원 만장일치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피해주민과 무주군의 입장에서 배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14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 거부 및 재정성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주민이 청구한 88억 7100만원 중 단 29억 9000만원만 인정하고 39%의 주민은 한 푼도 못 받는 어처구니 없는 배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제안하고 대표발의한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은 "원인행위이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단 29%만 배상의무를 지고 무주군과 전라북도가 11%씩 배상하도록 했다. 용담댐 대량방류로 지자체의 행정재난과 행정력 손실을 야기해 무주군 또한 피해자라며 피해를 입은 무주군이 배상의무자가 된 점을 납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이어 "피해를 입은 장소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서 배상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얘기"라며 원안행위가 명확한 만큼 구역에 상관없이 일반 피해주민과 동등하게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용담댐 방류피해 배상결정이 무주군 피해주민들의 재기를 방해하고 무주군의 지원의지를 꺾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이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무주군에 배상책임을 지운 결정을 회수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배상금을 재산정할 것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주민에 대해 일반 피해주민과 동등하게 배상할 것 ▲무주군이 지방·소하천 위임사무를 맡은 이유로 받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검토할 것 ▲무주군이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과 보조사업 우선 지원 등을 촉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 자연·문화유산 소개 메타버스 구축 제안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며 메타버스를 이용한 지역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14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청정무주 반딧불 메타버스로 극복하자'는 제의의 5분 발언을 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

해 메타버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문 부의장은 "무주군은 반딧불이와 그 밖의 서식지, 삼공리 반송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과 낙화놀이, 적상산사고 문화행렬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문화유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를 통한 지역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메타버스의 주요 활용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가상체험을 완료한 사람이 실제로 무주를 방문했을 때 혜택을 제공하고 유튜브, 사계절 홍보영상물과 연계해 활용하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이해연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장 해임규칙 개정요구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어떤 사건에 연루될 이장을 관결 전에 바꾸는 것은 부당하며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마을이장 해임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 무주군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장 업무를 현저히 해 태만한 경우에 읍·면장이 해당리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을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해연 위원장은 "관결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기소 사실만으로 이장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소되어 해임된 이장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교통사고로 기소된 이장과 마을 공금을 횡령한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신임이 같을 수 없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금고 이상 확정시 해임 등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무주군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이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세분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고 관련 규칙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해연 위원장은 무주군이 인사발령을 할 때 어느 한쪽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는지 파악하고 업무량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소상공인 대상 10만원 방역 물품비 지원

장수군이 오는 2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방역패스 적용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용을 업종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른

적용을 받는 업체가 해당 된다.

군은 앞서 지난 1월 실시한 방역 물품비 1차 지원사업 미신청 사업체 및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과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구매한 방역물품의 영수증을 첨부해 홈페이지 (http://naver.me/Gp4E78y)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황우성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방역패스, 거리두기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진안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진안군은 14일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입식테이블 설치, ▲낡은 주방·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 ▲홀 비단 및 벽면 등 환경개선 비용이며 업소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개선비 총액의 30%는 업소 부담이 필요하며, 테이블 간 키펠이 또는 파티션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사업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주민등록이 진안군으로 되어 있고,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다.

지원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2일까지 군 민원봉사과 위생팀을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읍면 연초방문건의 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14일 균형 상황실에서 2022년 읍면 연초방문 건의 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1월 3일부터 7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해 수렴한 주민 불편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전춘성 진안군수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30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총 28건의 건의사항을 점검했다. 분야별로는 건설 164건, 농업업 24건, 보건복지 15건, 환경 15건, 문화체육 14건, 상하수도 10건, 관광 8건, 기타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서별로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현지 출장 및 주민 유선 상담을 통해 처리계획을 수립한 결과 107건은 2022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연내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부서 협의와 일정 규모 이상 예산 확보가 필요한 132건은 장기검토로 분류했다. 또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즉시 조치가 가능한 27건은 1월중에 완료,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 또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어려운 사업 22건은 불개로 분류하여 관계 공무원이 건의자에게 상세 설명토록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원예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개설

무주군이 14일부터 올해 원예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에 들어갔다.

무주군은 이날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원예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 개강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25일까지 하루 4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개강식은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수강생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원예기능사 자격증은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원예작물을 정식하고, 생육 및 관리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학습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일정에 맞게 편성했으며, 이론과 실습 등 총 12회의 과정으로 필기와 실기시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개강식에 참여한 수강생 김모씨(무풍면 거주, 46세)는 "평소에 원예분야에 관심이 많고 농사도 짓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 교육이 농한기에 추진되면서 참여하게 돼 기쁘다"라며 "열심히 수강하여 꼭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